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1 호

2019 년 9 월 1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0/24)
2.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9/30)
3. 제11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8/19~22)
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및 협력 행사 안내
  -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경영 전략 워크숍 (9/20)
  - Sustainable Brands 2019 Seoul 국제 컨퍼런스 (10/18)

####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하나뿐인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 행동
2. 수자원 리스크, 기업들 각 지역 유역 상황 고려해 관리해야
  - [발간물] 『상황 기반 지역 수자원 목표 설정 가이드』

3. 유엔글로벌콤팩트, '15개국 SDG 선구자 발표'
4.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신임 이사에 PVH 社 회장, 엠마누엘 키리고 선임

####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개인 양조사업자를 위한 탄소포집 폐회로 시스템
2. [Goal 9,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국토정보공사

#### ■ UNGC 회원 뉴스

1. 롯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 발간...국내 그룹 최초
2.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 ■ CSR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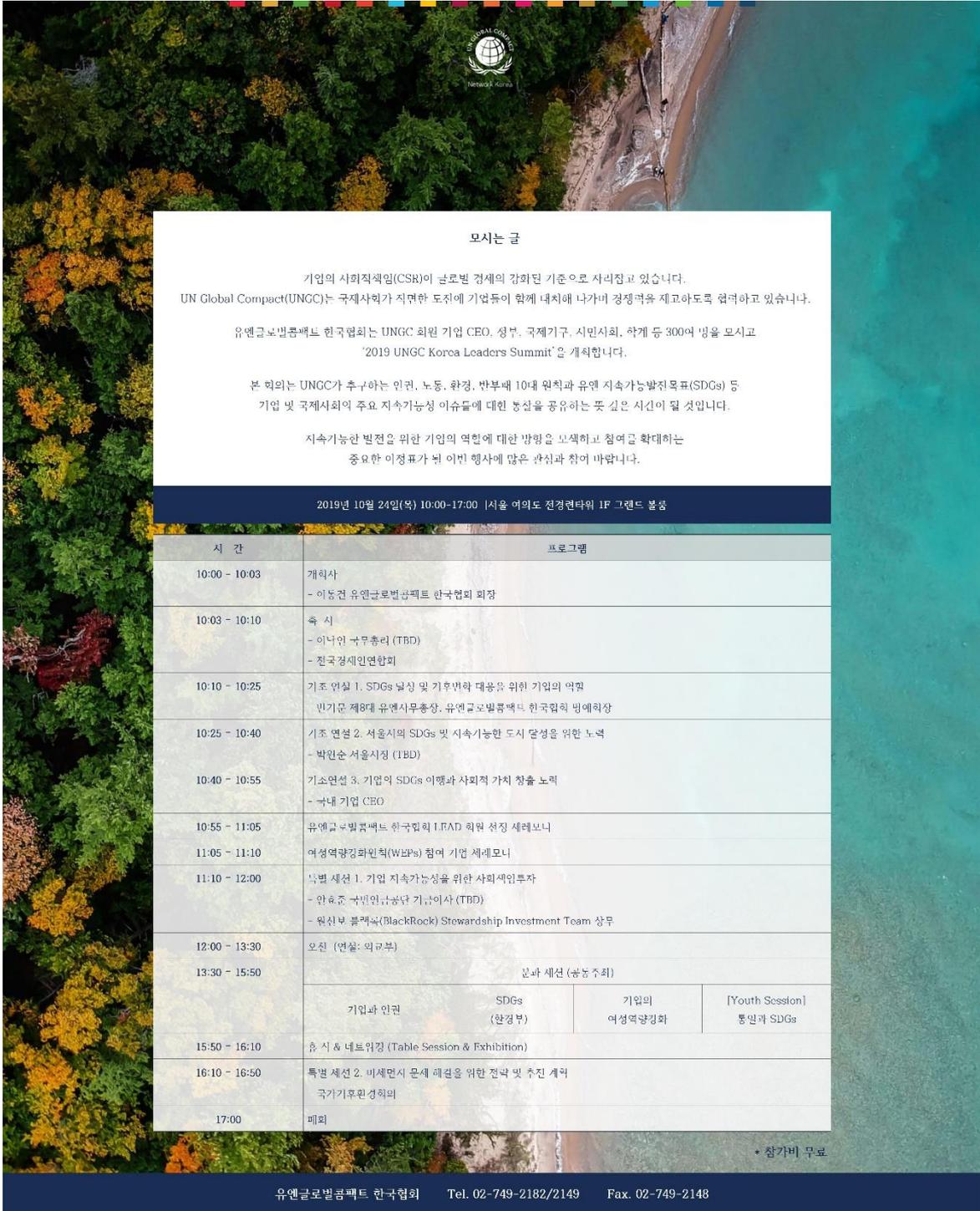
1. "주주 이익만 목표 아니다" 대기업 '사회적 책임' 선언
2. '책임' 없으면 투자 못 받는 시대... 금융권 '지속가능채권' 발행 잔걸음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소식

##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0/24)





**모시는 글**

기업의 사회책임(CSR)이 글로벌 경제의 강화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UNGC)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기업들이 함께 대처해 나가며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UNGC 회원 기업 CEO,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300여 명을 모시고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본 회의는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기업 및 국제사회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24일(목) 10:00-17:00 |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 1F 그랜드 볼룸

시 간	프로그래			
10:00 - 10:03	개회사 - 이동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10:03 - 10:10	속 시 - 이낙연 국무총리 (TBD) - 전국경제인연합회			
10:10 - 10:25	기조 연설 1. SDGs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 민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25 - 10:40	기조 연설 2. 서울시의 SDGs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노력 - 박인순 서울시장 (TBD)			
10:40 - 10:55	기조연설 3. 기업의 SDGs 이행과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 국내 기업 CEO			
10:55 - 11:0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IJFAD 회원 선정 세레모니			
11:05 - 11:10	여성역량강화인칭(WEPs) 참여 기업 세레모니			
11:10 - 12:00	특별 세션 1.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 알리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TBD) - 워싱턴 블랙록(BlackRock) Stewardship Investment Team 상무			
12:00 - 13:30	오찬 (연설: 외부)			
13:30 - 15:50	분과 세션 (공동 주최)			
	기업과 인권	SDGs (환경부)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Youth Session] 통일과 SDGs
15:50 - 16:10	휴식 & 네트워킹 (Table Session & Exhibition)			
16:10 - 16:50	특별 세션 2. 비재면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 국기기후원경학회			
17:00	폐회			

• 참가비 무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원문보기\]](#)

## 2.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9/30)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에서부터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 이르기까지 여성인권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엔의 이니셔티브로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여성 기업인 지원, 그리고 직장, 업계, 지역사회 내 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10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는 7개 원칙을 바탕으로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2019년 8월 현재, 전세계 약 2,300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 참여 방법

- CEO 지지 서명서 및 참여 기업 정보 제출 (~ 9/30)

최고 경영자가 경영 전략 및 비즈니스 운영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동 원칙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서명서에 친필 사인

<https://www.empowerwomen.org/en/weps/signtheweps>

#### ■ 참여 혜택

- 성(性) 격차 분석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의 자가진단 이행
- WEPs 참여 및 성평등 지지 대내외 홍보, WEPs 지지 기업 간 네트워크 참여
- WEPs 연례행사 참여 및 젠더 이슈 관련 최신 동향, 이행 사례 자료 활용
- WEPs 로고 및 WEPs의 'We Support' 로고 사용 가능

#### ■ WEPs 참여 기업 세례모니 일정

- 행사명: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 일시: 2019년 10월 24일
-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볼룸 (1F)
- 참석 대상: 기업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

#### 여성역량강화원칙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리더십
- 2 동등한 기회, 포용 및 차별 철폐
- 3 보건, 안전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4 교육과 훈련
- 5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활동
- 6 지역사회의 리더십 및 참여
- 7 투명성, 측정 및 공시



[원문보]

### 3. 제 11 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8/19~22)

#### ① 전체 개요 및 네트워크 세션



지난 8 월 20 일(월) ~ 22 일(수)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 11 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China-Japan-Korea UNGC Roundtable Conference)'가 중국 제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는 한·중·일 UNGC 협회 간 협력 도모와 각국 기업 및 학계, 학생 대표단 간 교류를 통한 CSR 촉진을 목적으로 2009 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행사는 'SDGs for Business - Try First to Be a Pioneer'을 주제로 3 국 기업가 및 학계 전문가 약 150 명이 참석해 SDGs 이행을 위한 한·중·일 협력 방안과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8 월 21 일 본 회의는 한·중·일 3 국의 SDGs 이행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한·중·일 기업 발표, 학생 대표단 발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주 홍콩(Zhu Hongren), 유엔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UNGC 10 대 원칙 및 SDGs 를 전파하는데 있어 삼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해결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며 한·중·일 간 파트너십을 보다 공고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CJK 라운드테이블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대표 사례이며, 그간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동 목표인 SDGs 를 위해 보다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키오 노무라(Akio Nomura),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이사는 11 년 전 CJK 를 시작했던 것이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미래는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곳이다'라는 말처럼, 이 자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오 웬(Qiao Wen), 한·중·일 3 국 협력 사무국(TCS) 경제 부장은 CJK 라운드테이블이 오늘날 여러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행사는 여러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는 각국의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TCS 는 한·중·일 3 국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들과 함께 기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리우 멩(Liu Meng), 유엔글로벌콤팩트 아태지역 대표는 내년 일본에서 있을 CJK 라운드테이블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빌어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의 정신을 기억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중·일 3 국의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협회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조니 관(Johnny Kwan), UNGC 중국협회 이사는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과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이 발표한 <SDGs Index & Dashboards> 를 인용해 중국의 SDGs 순위가 지난 3 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현재 전세계 162 개국 중 39 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고 한국과 일본을 통해 배울 점 역시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니 관 이사는 중국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SDGs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에게 SDGs 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쓰네오 오바(Tsuneo Oba), UNGC 일본협회 국장은 협회의 행사들이 많은 기업 및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특히 'SDG Survey 2018' 발간은 큰 호응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내년 라운드테이블이 10 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여러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의견들을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업 CEO 들의 SDGs 선언과 폴 폴먼(Paul Polman) 전 유니레버 CEO 가 참석한 CEO 조찬포럼, 제 10 회 아시아리더십 컨퍼런스 등 뜻 깊은 행사가 있었으며, 올해는 기업의 CSR/지속가능경영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CSR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발족했고, △기업과 인권, △SDG, △반부패 3 개의 이슈별 실무그룹 활동이 큰 호응을

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 월 24 일에 서울에서 있을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을 언급하며 내외 귀빈들을 초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업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중·일에서 각 3 개 기업, 총 9 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사회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아모레퍼시픽, Kirin Holdings Company, Beijing Fanglue Bohua Culture & Media),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방안 (SK 텔레콤, COMANY INC, BROAD Group), △기후변화 해결방안 모색 및 지역 개발 달성 (유한킴벌리, Fujitsu Limited, Yili Group)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청년 세션에서는 각국에서 선발된 한·중·일 청년 대표단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중·일 3 국의 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구성된 A, B C 팀은 각각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대중 인식 제고 방안,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두 달간 온, 오프라인 미팅을 갖고 그 결과물을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21 일, 학생 대표단은 중국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DPICGSC(demonstration Park of Innovation and Coopearion of Global Supply Chain)을 방문하여, 중국 전통 상품 제작 과정과 다양한 전시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삼국의 기업 및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UNGC 10 대 원칙 이행과 민간부문의 SDGs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연례행사입니다. 내년은 제 12 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는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원문보기\]](#)

## ② 기업 세션



'SDGs for Business - Try First to Be a Pioneer' 를 주제로 중국 제남에서 열린 올해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에는 한·중·일 삼국에서 각 3 개, 총 9 개 기업이 참여해 세가지 주제에 대해 각 사의 가치와 방향성 전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첫번째 세션의 주제는 <지역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CSR 팀의 강승성 팀장은 중국에서 약 8 년 간 진행하고 있는 'Makeup Your Life'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강의로 시작한 본 프로젝트는 China Women's Development Foundation(CWEF)의 지원으로 빈곤지역의 여성들에게 두 종류의 암(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토탈 케어 서비스(Two Cancer Type Screening Service)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성 팀장은 본 프로젝트의 사전조사 단계부터 실행방안, 평가방법까지 단계별로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성과와 지역 사회에 미친 임팩트를 공유했습니다. 강 팀장은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만족에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강한 뿌리가 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 기린홀딩스(Kirin Holdings Company)의 료스케 미즈치(Ryosuke Mizouchi), 이사는 뉴질랜드 지진 피해 지역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주류판매점을 오픈한 사례와 함께 토노 지역의

독립적인 지역 양조장에 기린의 양조 기술인 '탑 마르쉐'를 제공하여, 생산량과 지역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중국의 Beijing Fanglue Bohua Culture & Media, 구오와웬(Guo Yawen) 회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사의 활동으로 중국 어린이도서관전시회, 국제어린이미술페스티벌 등 가족들과 함께 전통 중국 예술을 현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20 개국에서 예술가들을 초빙해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자사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두번째 기업세션의 주제는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방안> 이었습니다. 한국 대표인 SK 텔레콤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유용환 센터장은 SK 의 사회적가치창출 방안에 대해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바텀라인', △ 자산과 가치를 공유하는 'Shared Infrastructure', △ 사회적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에 투자하는 'Social Enterprise Ecosystem'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SK 텔레콤의 IOT 기반 인간중심기술을 소개한 유용환 센터장은 네비게이션 서비스 T-map 과 보험사를 연계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에 따라 안전운전 점수를 매겨 안전운전 점수가 높을 시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T-map 안전운전' 적용 후 위험 운전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덩 유양양(Ding Yuangang), BROAD 그룹 부회장은 기업, 개인,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사의 가치를 공유하며 비약적인 속도로 건물을 짓고 있는 중국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자재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COMANY INC.의 나오유키 츠카모토(Naoyuki Tsukamoto) 이사는 지진 관련 기술 대학연구팀과 협업하여 내진설계 기술을 개발해 SDG 9 에 기여하여 2017 년까지 4000 명 이상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오유키 츠카모토 이사는 자사가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이 공동의 필요성을 넘어 시장의 척추 역할을 함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하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기업세션의 주제는 <기후변화 해결 방안 모색 및 지역 개발 달성>이었습니다. 한국대표인 유한킴벌리 환경경영워크그룹의 이승필 팀장은 유한킴벌리가 16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SDGs 목표 6, 7, 12, 13, 14, 15, 16, 17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숲을 형성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으로 국토 전 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목표를 위해 대중과 함께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한 이승필 팀장은 'Low Carbon Vision 2020' 등 유한킴벌리의 새로운 목표에 대해 공유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IT 회사 후지쓰(Fujitsu Limited)의 토요아키 마츠무라(Toyoaki Matsumura) CS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 Responsible Business Unit 팀장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작년 CDP의 A 리스트에 오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공유한 마츠무라 팀장은 이어 파리 협정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열 감지 사례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사례 등 기후변화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WIPO-Green 과 파트너십을 맺어 환경보호를 위해 사회 혁신가들과 협업해오는 사례를 소개하며 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만들어갈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중국 기업인 일리 그룹(Yili Group) 슈 키(Xu Ke) 부회장은 일리 그룹이 생물다양성을 현지화(localize)한 최초의 기업임을 강조하며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 WWF와의 협업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 관심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기업이 그린 리더십을 컨셉으로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빠르게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내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문보기]

### ③ 청년 세션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청년 세션에서는 각국에서 선발된 한중일 청년 대표단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A 팀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활동과 관련해 소개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식을 언급하며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A 팀은 중국 기업 알리바바 그룹(Alibaba)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활동, 일본 기업 사라야(Saraya)의 천연 세제를 활용한 사례, 그리고 한국 기업인 LG 유플러스(LG U+)와 텍스터 스튜디오(DexterStudios)가 AR 기술을 이용해 멸종 위기 종에 대한 인식을 높인 사례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프로모션 이벤트,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 제고 방식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B 팀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해 발표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한 B 팀은 전체 라이프사이클 생물다양성 보호 관리 시스템(Full-lifecycle biodiversity protec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농업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일리 그룹의 사례에 이어 제품 용기와 패키징에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여 산림 파괴를 막고 있는 기린의 사례, 마지막으로 철 생산원료를 활용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을 돕고 있는 포스코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세가지 제안점으로 생물다양성 지표 설정,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C 팀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알리바바 그룹(Alibaba)의 Ant Forest 앱 사례, 웹사이트를 활용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바이두(Baidu)의 사례를 소개했고, 일본 기업으로는 앱을 통해 다양한 생물 데이터를 모으고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바이옴(Biome), 생물다양성 정책을 세워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카고메(Kagome)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포스코(POSCO),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와 복원 사업을 통해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는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을 한국 기업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제언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 및 산업간 협력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학생 대표단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멘토들의 피드백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한 청년 대표들에게는 중국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심은 나무에 이름을 올리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일리 그룹의 2020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에 평가자로서 참여하고 포럼에 초청받는 등 다양한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원문보기\]](#)

④ 청년대표단 학생 수기 \_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4학년 구희원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유엔글로벌콤팩트 협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중국 제남시에 각 국가간의 민간 부문, 학계, 청년들을 초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하여 소통하고 토의하기 위해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습니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한중일 컨퍼런스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소주제를 바탕으로 청년 프로그램, 강의 및 기업 사례발표 그리고 기관 방문으로 이루어져 한중일 3개국 간의 여러 부문을 아울러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첫 날 진행된 청년 프로그램은 청년 대표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이 고루 섞여 팀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3국협력사무국 및 기업의 발표가 진행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사례를 듣기 위해

중국 내의 저명한 기업 Qizheng Tibetan Medicine, Green Life 그리고 N% Plan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각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과 겪은 한계점 및 성공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특히 Green Life 라는 시민사회의 창립자 Yi Jiefang 은 더 이상 몽골의 사막화가 심해지지 않기 위해 척박한 몽골 땅에 나무 한 그루씩 심기 시작했던 경험을 얘기하였는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보호해야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시금 알려주며 많은 학생들의 공감과 실천 의지를 자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업 관계자들이 다양한 사례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날에는 각국의 유엔글로벌콤팩트 대표, 기업, 학계 그리고 학생들의 발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네트워킹 세션에는 한국, 중국, 일본 글로벌콤팩트협회가 각 국가 내에서 어떤 SDGs 목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행되어가고 있는지 활동을 공유하며 현 상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업 세션에서는 일본의 기린홀딩스,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팡루 보화 관계자들로부터 각 기업이 지역사회의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례와 기업의 역할에 관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이어 두번째 기업세션에는 기술 혁신을 통한 SDGs 달성에 관해 한국의 SK 텔레콤, 중국의 BROAD 그룹 그리고 일본의 COMANY 의 관계자로부터 각 기업의 기술 발전 사례와 지역사회개발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여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진행된 세번째 기업 세션에는 중국의 이리실업그룹, 일본의 후지쯔 그리고 한국의 유한킴벌리 관계자들로부터 기업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업 사례발표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과 SDGs 이행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그들이 생각하는 현 시사점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년 세션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복구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한중일 학생 대표단 세 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방안, 생산 과정에서의 보존 방안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방안의 세 가지 의제로 나뉘어 발표한 학생들은 청년들의 시각을 담아 기업의 역할 그리고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관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8 월 22 일, 3 국 청년 대표단 43 명과 한중일 글로벌콤팩트협회는 제남시의 Global Supply Chain Innovation Cooperation Demonstration Park 을 방문하여 중국의 제조업자 및 중소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소개를 듣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여러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3 일 간 진행된 본 행사는 학생들에게 기업, 학계 및 CSR 관계자들이 SDGs 를 달성하고 CSR 을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한중일 간 협력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와 시사점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및 협력 행사 안내

##### 1)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경영 전략 워크숍 (9/20)

##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경영 전략 워크숍

· 기업 해외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 증진 전략 더 알아보기 ·

2019. 9. 20. (금) 13:30 - 17:30



기업의 인권경영은 오늘날 글로벌 시장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기업과 생산 전 과정 내 투명하고 윤리적인 고용 관리는 이제 권고 사항의 수준을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들이 요구하는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 생산기지와 수출 통로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 역시 면밀한 리스크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는 9월 20일,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는 기업 실무 담당자님들을 모시고,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기지 및 공급망 내 우수 인권 경영 사례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쌓은 IOM의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인권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안내



#### 대상

국내 기업  
유관부서 담당자



#### 일시

2019. 9. 20(금)  
13:30 - 17:30



#### 장소

버텍스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22층

- 워크숍은 강의 및 그룹토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외국인 전문가가 진행하는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석신청은 9월 16일(월)까지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하기 

## 프로그램

시간	주 제	진 행
13:10 - 13:30	등록	
13:30 - 13:35	환영사	박미형 소장 IOM 한국대표부
13:35 - 14:50	기업과 인권 경영 - 글로벌 산업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와 국내 기업의 연관성 - 글로벌 기업 사례 분석 - 관련 리스크와 인권 경영에 대한 기업 대응의 중요성	노유란 담당관 IOM 한국대표부
14:50 - 15:00	휴식	
15:00 - 15:30	해외 우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파타고니아의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김광현 차장 파타고니아 코리아
15:30 - 15:45	휴식	
15:45 - 17:00	윤리적 고용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전략: 리스크를 기회로 - 기업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리스크 점검 - 실질적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Anastasia VYNNYCHENKO IOM CREST team
17:00 - 17:30	질의 응답 & 마무리	

주 최  IOM  
UN MIGRATION

후 원  IOM Development Fund  
IOM DEVELOPMENT FUND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자세히 보기\]](#)

## 2) Sustainable Brands 2019 Seoul 국제 컨퍼런스 (10/18)

<SB 2019 Seoul>에 참석을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등록 할인코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50)





### SB 2019 Seoul 국제 컨퍼런스 초청문

**Latitude Inc.** [www.sustainablebrands.kr](http://www.sustainablebrands.kr)

래티튜드는 지난 3년간 국내외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혁신과 지속가능성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좋은 삶(Good Life)을 구현하는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인 Sustainable Brands (이하, SB)와 함께 'SB 2019 Seoul' 이름으로 한층 발전되고 확대된 국제 컨퍼런스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Sustainable Brands** [www.sustainablebrands.com](http://www.sustainablebrands.com)

SB가 주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시리즈는 2019년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칠레,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10여개 국가에서 'Good Life'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표와 취지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처음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SB Seoul 2019'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세계적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여 교통/운송, 미래식품, 스마트 공간환경, 자원순환, 공급망과 포용성이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분야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SB 2019 Seoul – The First SB Event in South Korea**

SB 2019 Seoul 국제 컨퍼런스는 전세계 기업, 전문가들의 실용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으로써, 한국 공공-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함께 논의하고, 그 성과를 전세계에 다시 널리 알리는 가고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실하는 바, 부디 행사에 적극 참석하시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한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B 2019 Seoul 행사개요**

- 일시: 2019. 10. 18(금) 0930-1800 / 디너 리셉션 (1800-2030)
- 장소: 서울 반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5층)
- 주최 기관: 래티튜드 & Sustainable Brands
- 협력 기관: KBCSD, UNGC, 환경일보, 푸드아이콘
- 참가 방법: [www.sustainablebrands.kr](http://www.sustainablebrands.kr)에서 온라인 신청
- SB 2019 Seoul 운영사무국
- 전화: 02-734-5667, 이메일: [seoul@sustainablebrands.kr](mailto:seoul@sustainablebrands.kr)

**Affiliate Partners / 협력기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Affiliate Partner	 유엔글로벌콤팩트 Affiliate Partner
 환경일보 Media Partner	 푸드아이콘 Media Partner



[\[자세히 보기\]](#)

## 본부소식

### 1. [Executive Update] 하나뿐인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 행동

본 기고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2019년 8월 21일, 그린비즈(GreenBiz)에 작성한 글입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없었고,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촉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협하는 기상 패턴 변화에서 대규모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해수면 상승에 이르기까지 기후 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이고 전례가 없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가 사람과 지구의 생존을 지속적으로 위협함에 따라 우리는 비즈니스 운영과 경제의 혼란을 전 세계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지난 11월 보고서는 매 0.5 °C가 지구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사례로 들며 '2 °C 미래'와 '1.5 °C 미래'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야심 찬 기후 행동은 파리기후협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미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최악의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상황에 맞설 수 있는 혁신, 도구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리더십입니다.



기후 변화를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그 영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전례 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Time](#) 지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후 변화가 다자주의의 가치를 증명해 낼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경제(net zero carbon economy)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리더로서 기후 운동의 선두에 서서 정부 및 유엔과 협력하고 산업 및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재구상할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개 이상의 비즈니스, 시민 사회 및 유엔 지도자 연합과 함께 전 세계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과 연계하여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야심적인 기후 행동 강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첨단 기후 과학과 연계하는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제로 배출 미래(net-zero emissions future)로 가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해당 캠페인에는 이미 21개국, 22개의 부문, 약 2백만 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총 2.2조 달러 이상의 시가 총액의 [44개의 기업](#)이 새로운 수준의 기후 목표를 정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투자자 및 정부에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비즈니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1.5°C에 맞춘 기업 전략이 전 세계 비즈니스 및 공급망에 새로운 표준이 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업의 추진 의지는 야심찬 기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사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기후행동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은 기업에게 기후 관련 해결책에 대한 추가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변화의 일환으로 리스크 관리가 원활 해지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내년은 2020년까지 국가 기후 계획과 장기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기업의 기후 행동과 병행하여,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경제 발전 경로와 기업의 넷-제로 미래 (net zero future)에 대한 투자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를 통해 민-관 협력은 특히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어려운 부문에서 보다 의미 있고 야심찬 기후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UN Climate Action Summit)에 전 세계는 뉴욕에서 모여 이러한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다자간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상회담은 체계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실행, 확장 및 복제 가능한 다중 이해관계자 솔루션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명확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에 기후 야망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하는 용기가 있는 개인, 국가 및 조직은 내일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미래는 우리 모두가 기후 행동과 야망을 총괄적으로 확대하는데 달려 있으며, 기업 리더는 ["1.5°C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Business Ambition for 1.5°C\)](#) 캠페인에 참여하고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나은 세상을 위한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문보기\]](#)

## 2. 수자원 리스크 기업들 각 지역 유역 상황 고려해 관리해야

세계 물 주간 (World Water Week) 기간 중 신규 *가이드* 발행, 수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가이드 제공

세계 물 주간(World Water Week) 기간 중 발행된 '유역 상황 기반 지역 수자원 목표 설정 가이드(*Setting Site Water Targets Informed by Catchment Context: A Guide for Companies*)'는 기업에게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출판물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수자원 관리 책무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CEO Water Mandate),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the Pacific Institute, 국제 자연보호협회 (Nature Conservancy),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DHI Centre for Water and Environment, Water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연기금 (World Wildlife Fund, WWF)이 함께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더 많은 홍수와 가뭄이 예측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자원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수자원은 각 지역의 유역 수준에서부터 관리되어야 하는 범지구적 과제입니다. 기업을 위한 본 신규 가이드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수자원 리스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악화되는 기후 영향의 완화 및 적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 소비와 오염의 증가, 강력하지 못한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수자원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오염물질인 탄소와 달리 물은 본질적으로 지역 자원입니다. 본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기업활동과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수자원 사용 및 배출뿐 아니라 각 유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유역 특성이 모두 다른 만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 따르면, 성공적인 지역 수자원 관리 원칙 설정의 핵심 요소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시급한 과제 해결 시 현장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자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행동은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주요 공공 정책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제공하고 이상적 수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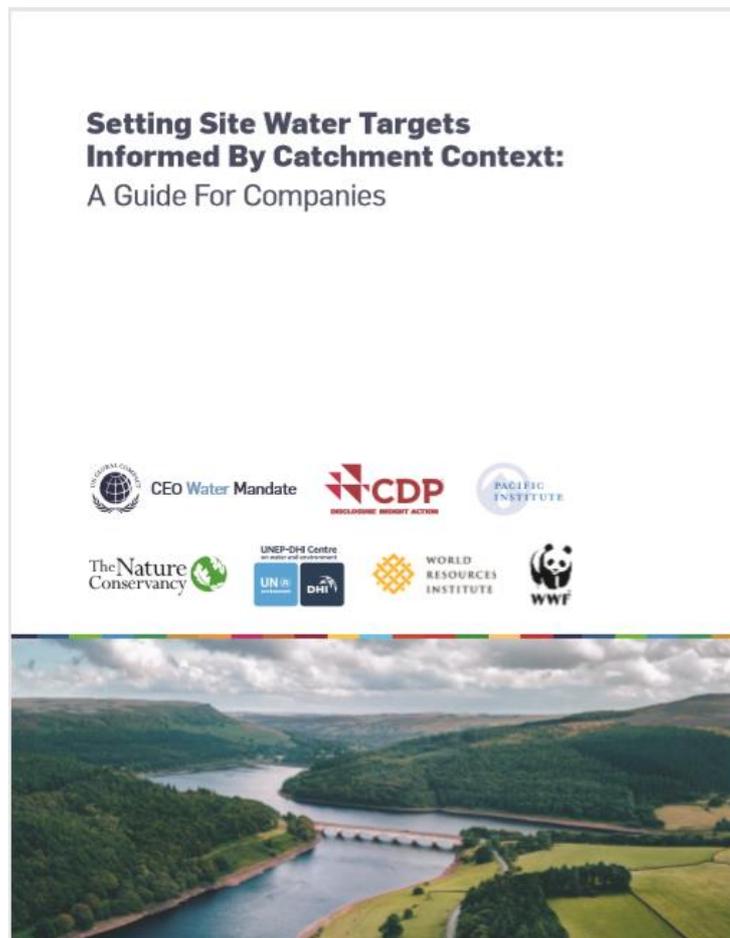
### **유엔글로벌콤팩트 수자원 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에 대하여**

2007년 7월,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된 유엔글로벌콤팩트 수자원 관리 책무 (CEO Water Mandate)는 기업이 수자원 지속 가능성 정책 및 관행의 개발, 구현 및 공개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공공-민간 이니셔티브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이끌고 Pacific Institute와

파트너십을 맺은 수자원 관리 책무는 우수 및 신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액션 플랫폼을 제공하여 수자원 및 위생시설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중 이해 관계자 협력 구축을 지원합니다. 수자원 관리 책무는 100 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eowatermandate.org](http://www.ceowatermandate.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발간물] 『상황 기반 지역 수자원 목표 설정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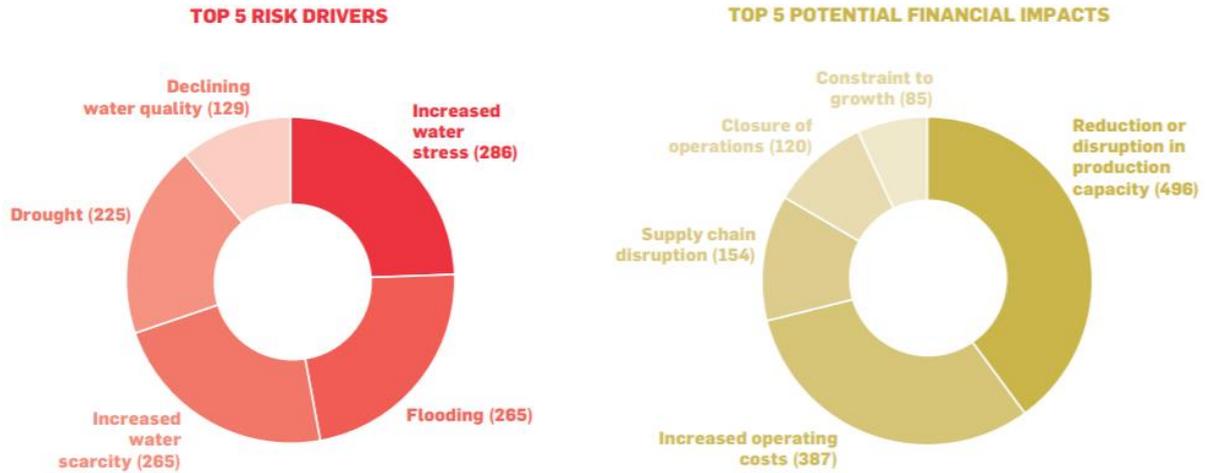


\* 본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 '지역(Site)'은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하고 기반 활동하는 부지 및 시설을 말합니다.

수자원 소비 및 오염 증가, 강력하지 못한 관리 체계,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수자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수자원과 관련된 외부 효과로부터 자사를 보고하고 늘어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water stewardship)에 참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5 개 수자원 위험 요인 및 잠재적 재정 영향력 (CDP, 2019)

FIGURE 1. Top five water risk drivers and potential financial impact from companies reporting to CDP in 2018<sup>4</sup>



유역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수자원 목표는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에 근거하여 지역 차원에서 행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소수의 기업들 만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유역 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역 수자원 목표를 설정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리스크를 줄이며, 공동의 노력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지 및 시설 담당 직원, 수자원 관리 담당 직원, 수자원 관련 기술 전문가 및 관련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가이드는 효과적인 부지 및 시설 수자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와 각 요소와 관련된 권고 활동을 제시합니다.

## 유역 상황을 반영하는 수자원 목표 설정 3 가지 요소

**TABLE ES-1. Three elements for setting site water targets that reflect the catchment context**

Elements for effective water target setting	1 Water targets should respond to priority water challenges within the catchment	2 The ambition of water targets should be informed by site's contribution to water challenges and desired conditions	3 Water targets should reduce water risk, capitalize on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to public policy priorities
<b>Recommended Actions</b>	1.1. Understand operational risks, dependencies and impacts	2.1. Determine the desired condition for the priority water challenges	3.1. Identify existing water stewardship initiatives, collective action efforts, and public policy initiatives in the catchment
	1.2. Determine spatial scope	2.2. Assess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nd desired conditions	3.2. Set targets that, when possible, contribute to existing efforts to meet desired conditions
	1.3. Prioritize water challenges within the catchment	2.3. Determine company contribution towards desired conditions	3.3. Determine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measure progress towards meeting targets
<b>Desired Outcome</b>	Targets address contextual water challenges and business risks	Target ambition is proportional to the magnitude of the water challenge	Targets deliver tangible business value and drive action to meet the desired conditions

1. 유역 내 수자원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① 운영 리스크, 의존성 및 영향들을 이해합니다
  - ② 목표를 세울 물리적 범위(Scope)를 설정합니다.
  - ③ 유역 내 수자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2. 수자원 목표의 스케일은 기업의 기여도와 지역의 이상적인 목표 상태(desired conditions)를 반영해 설정해야 합니다.
  - ① 가장 시급한 수자원 문제의 이상적 목표 상태를 설정합니다.
  - ② 현 상태와 목표 상태 간 차이를 평가합니다.
  - ③ 목표 상태에 대한 기업의 기업 기여도를 설정합니다.
  
3. 수자원 목표는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활용하며 공공부문 문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 ① 참여 가능한 수자원 이니셔티브, 공동 노력, 공공정책 이니셔티브를 파악합니다.
- ② 목표 상태 도달하기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웁니다.
- ③ 실행 전략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측정합니다.

지역 수자원 목표는 종종 전체 수자원 사용량, 수자원 효율성 및 수질에 중점을 둔 기업 차원의 목표에서 설정되며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의 접근, 위생 및 위생시설(WASH)과 같은 수자원 문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목표는 해당 지역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 목표와 수자원 관리 접근법



대부분의 경우, 기업 혼자의 활동으로 유역의 수자원 안보를 눈에 띄게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다른 수자원 이용자와 협력하여 지역 상황과 상대적 책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수자원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은 리더십을 발휘해 유역 상황을 반영하는 수자원 목표를 세우고 수자원 문제를 보다 완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보기\]](#)

### 3. 유엔글로벌콤팩트, 15 개국 SDG 선구자 발표

15 개국의 젊은 SDG 선구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8 월 21 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뛰어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별 젊은 비즈니스 리더, '청년 SDG 선구자'를 선정 및 발표했습니다.

'청년 SDG 선구자'로 선정된 15 명의 젊은 실무자들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선정기준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자사의 핵심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 및 SDG 진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최근 4 년 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도가 본래 목표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밝히며 각 분야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추진하는 젊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것은 전 분야에 걸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계를 보다 지속가능한 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DGs 선구자(SDG Pioneers)' 프로그램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진행하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년도 '청년 SDG 선구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 중 업무를 통해 SDGs 를 발전시키고 있는 35 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9 국가별 유엔글로벌콤팩트 '청년 SDG 선구자':

- 방글라데시: 대쉬훅 무집 ([Mashook Mujib Chowdhury](#)), DBL 그룹, 지속가능성 관리자
- 브라질: 줄리아나 올리베이라([Juliana Oliveira](#)), 네슬레, 공유 가치 창조 분석가
- 캐나다: 린지 베르헤르([Lindsey Verhaeghe](#)), Nutrien Ltd., 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 & 리포팅 관리자
- 중국: 쉬 찬즈([Xu Chuanzi](#)), 주 그리드 항저우 전력 공급 회사, 부회장
- 크로아티아: 이반 마라소비치([Ivan Marasović](#)) INA d.d., 경력 및 재능 관리 선임 전문가
- 덴마크: 샬럿 솔링([Charlotte Sølling](#)), MP Pension, ESG 관리자
- 조지아: 마야 코발리아([Maya Kobalia](#)) MFO Crystal, 환경사회부 대표
- 이탈리아: 프란체스카 마르투치([Francesca Martucci](#)), Pirelli & C. S.p.A., 지속가능성 전문가
- 케냐: 조이스 시토닉([Dr. Joyce Sitonik](#)), ARR Health Care Kenya, 임상 비즈니스 운영 대표
- 레바논: 마크 톨베이 헬로우([Marc Torbey-Helou](#)), Banque Libano-Francaise, 수석 은행가
- 네덜란드: 딜런 맥닐([Marc Torbey-Helou](#)), Royal Philips NV, 공급자 지속 가능성 이사
- 남아프리카: 사라 위튼([Sarah Whitten](#)), Standard Chartered Bank, 전무 겸 글로벌 계정 관리자
- 스리랑카: 로산 위라싱게 ([D.D. Roshan Weerasinghe](#)), MAS Holdings (Pvt) Ltd., 부팀장
- 영국: 레간 레이히([Regan Leahy](#)), Hogan Lovells, 시민권 관리자
- 미국: 맥 파커 영([Meg Parker Young](#)), Thomson Reuters, 영향 전략 및 발전 이사

국가별 수상자들은 'SDG 선구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은 국가 지원자들과 함께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SDG 선구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라운드'에 진출할 것입니다. 글로벌 라운드 수상자 최종 10 인은 9 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 74 회 유엔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9 년 SDG Pioneers 프로그램은 Tuborg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4.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신임 이사에 PVH社 회장, 엠마누엘 키리고 선임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PVH社의 회장이자 CEO인 엠마누엘 키리고 (Emanuel Chirico)의 이사회 이사로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유엔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엠마누엘 키리고 이상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합류를 환영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에 있어 엠마누엘 키리고 이사의 풍부한 경험은 지속가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움직임을 활성화하여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엠마누엘 키리고 이사는 켈빈 클라인 (CALVIN KLEIN), 타미 힐피거 (TOMMY HILFIGER), 반호이젠 (Van Heusen) 등을 소유한 PVH사의 회장이자 CEO입니다. 박애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인류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미국이며 1993년부터 PVH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고 EY (Ernst & Young LLC)에서 파트너로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키리고 이사는 Women's Wear Daily's CEO Creative Leadership로부터 '리더십상'을 수여받았으며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뽑기도 했습니다. 또한, Glassdoor의 '최고의 CEO',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의 '리더십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을 위한 이니셔티브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비급여, 명예직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전략과 정책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지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 4년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2030 의제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더 알아보기](#)

## SDGs 소식

### 1. 개인 양조사업자를 위한 탄소포집 폐회로 시스템



*Earthly Labs* 는 수제 양조장에서 술을 제조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산화 과정과 포장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러그앤플레이(plug-and-play)' 형태의 탄소포집기구를 개발했습니다.

Earthly Labs 의 CiCi 는 냉장고 크기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구로 탄소포집기술을 작은 규모의 양조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CiCi 는 '플러그앤플레이' 형태이기 때문에 값비싼 기계를 새로 구매할 필요 없이 제품을 양조장의 기존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iCi 는 음료 제조단계 중 발효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정화하여 탄산화와 같은 단계에 사용되는 액화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킵니다.

이러한 기술은 규모가 더 큰 양조장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arthly Labs 의 솔루션은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더 작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탄소 채집 기술을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arthly Labs 는 해당 기술이 양조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양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생산단계에 활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로 변환하는 순환 시스템을 통해 탄소비용을 50-100% 사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Why you should care

수제 양조장은 매년 약 5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탄산화 및 포장과 같은 단계에 사용하기 위해 그 절반의 이산화탄소를 구매합니다.

Earthly Labs 의 CiCi 는 양조장에서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폐회로 시스템을 통해 양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연히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매년 1 억 5000 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CiCi 의 '플러그앤플레이' 디자인은 양조장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기존 양조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CiCi 에 활용되는 폐회로 시스템은 폐기물을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투입비용을 감소시킵니다.



##### 기후행동

Earthly Labs 는 CiCi 가 양조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0 억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채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5. [Goal 9,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국토정보공사



###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 (이하: "LX")는 국가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인 지적측량, 지적조사, 공간정보사업, 해외사업, 연구·교육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한 혁신성장과 차별 없는 대국민 국토정보 제공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X 는 사회적 가치 전략을 도출하여 각 전략방향과 UN SDGs 대응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SDGs 전략 및 사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9 번째 과제는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인프라 혁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LX 는 사물인터넷 (IoT), 드론(UAV)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국토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공간정보를 도입하면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LX 는 우선적으로 도로, 철도, 하천에 대한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토개발사업과의 연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국토개발 정책사업,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 대상지구를 선별하여 조사와 현장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공부 오류정비 사업과 지역(동경)측지계로 사용 중인 지적도면을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정보는 국가의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연동시켜 최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드론(UAV) 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LX 는 드론(UAV)을 활용한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 활성화에 따른 사고예방체계 구축 등 안전비행 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드론 영상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해상도 영상 기반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설물 영상정보 관리, 3D 모델링 뷰어 서비스 제공 등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 대비 196 배에 달하는 드론 영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160 여개의 기관이 드론 영상 통합플랫폼 고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 번째 과제는 완전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도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LX 는 현대시 국토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국토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들의 다양한 토지행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X 는 공간정보, 지적조사 및 측량 관련 노하우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 체계적 공간정보체계의 중요성

체계적인 공간정보체계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틀로서 해당 국가의 토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 내에서는 토지 정보를 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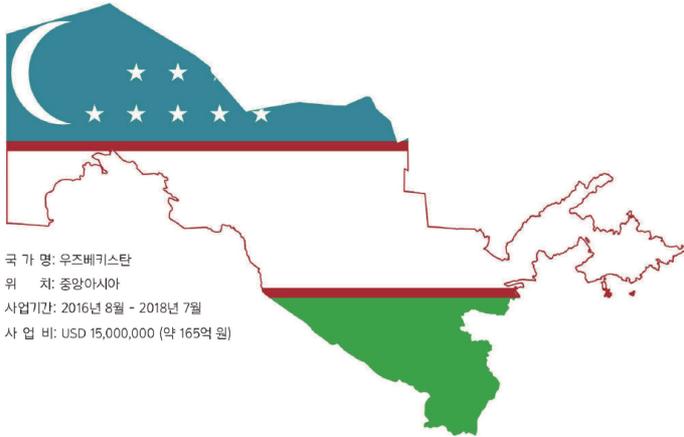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정보의 기재 오류, 중복 생산, 실제 토지 상황과 토지 정보 간의 불일치, 관련 부서 간 토지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게 만드며 토지 관련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토지 행정 및 관리 요건을 반영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X 는 2016 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협정에 따라 추진된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을 지난 7 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체계를 개선하고 선진 공간정보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토지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

LX 는 지난 2 년간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 내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는 50 개의 상시관측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우즈베키스탄 측위체계(UzPOS)를 구축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3 호와 아리랑-3A 위성으로 촬영한 농경지 및 도시지역 121,000km<sup>2</sup> 에 대한 0.7m 급 모노영상, 사막 등 기타 지역 343,000 km<sup>2</sup> 에 대한 0.7m 급 스테레오영상을 제공하여 디지털 지형도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의 공간정보 정책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LX 가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향후 5~7 년간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체계(NGIS)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핵심 구성요소인 부동산 및 공간정보 DB 가 포함되어 있어 전자정부 연계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LX 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간정보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칠레, 튀니지, 모로코,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17 개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행정과 선진 지적제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1 번째 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에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적·공간정보 공공기관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측위체계(UzPOS) 구축



국 가 명: 우즈베키스탄  
위 치: 중앙아시아  
사업기간: 2016년 8월 - 2018년 7월  
사 업 비: USD 15,000,000 (약 16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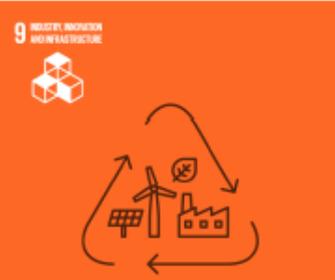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



##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9.4는**  
**자원활용 효율 개선과 청정 친환경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산하의 기술, 산업, 환경 부서에서는 1989년에 '인간과 환경에 끼치는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환경 기술을 생산 공정, 제품, 서비스에 정의하며 CP가 모든 산업 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부터 CP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UNEP은 자원 관리를 산업생산 패턴에 통합시키지 않고,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원 효율성과 청정 생산(RECP)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개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transition economies)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산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SDGs도 RECP 적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9.4**  
 2030년까지 국가별 역량에 따른 자원활용의 효율 개선과 청정·친환경 기술 및 산업공정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9.b는**  
**개도국의 기술개발, 연구, 혁신 지원을 위해 최적의 정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1995)의 이행계획에서는 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커뮤니티 안에서 무역, 투자, 이민, 과학 및 기술 혁신,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 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정책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근거합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연구 개발의 세계화와 개도국 보고서(2005)'를 통해 개도국에서 기존의 혁신과 지식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관의 부재, 연구 개발 역량 부족, 자원의 한계, 정책 대응 미흡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개도국에서 국내 기술, 연구, 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합니다.

**9.b**  
 산업 다변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적절한 정책환경 보장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11.3는**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에서 유엔인간정주재단(UNHHSF)은 도시화를 전담하는 첫 공식 유엔기구로 1975년에 발족하였습니다. UNHHSF는 개도국의 기술 및 금융자본 제공을 통해 주거지와 연관된 국가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제 1차 인간정주회의(1976)에서 채택한 인간정주선언은 인간정주계획(UN-HABITAT)에서 UNHHSF의 예산지원을 담당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이에 제2차 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한 '해비타트 의제(1996)'에서는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거주지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계획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RIO+20에서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도시화를 다루었고 SDGs에 포함되었습니다.

**11.a**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촌 간 균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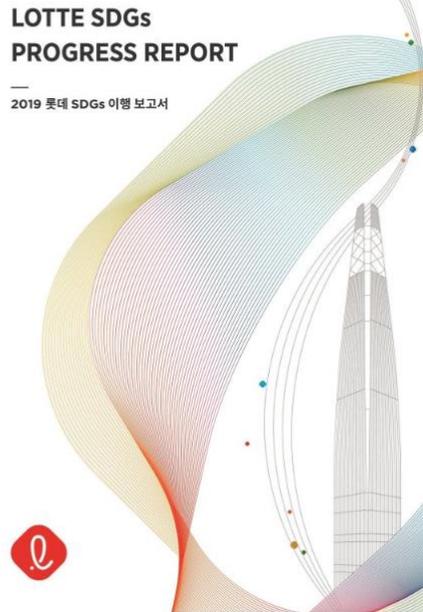
[원문보기]

# UNGC 회원뉴스

## 1. 롯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 발간...국내 그룹 최초

### 롯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 발간...국내 그룹 최초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8.28 09:24 | 수정 : 2019.08.28 09:24



- 롯데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글로벌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 그룹사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힘.
- 이번 보고서는 '여성·아동, 환경, 상생'을 주제로 15 개 롯데 그룹사가 추진해 온 50 여개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내용을 담고 있음.
- 롯데는 그룹차원의 'mom 편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여성 우울증 인식 개선 'Rejoice 캠페인', 롯데마트 '글로벌 청년&스타트업' 육성, 롯데홈쇼핑의 맹아 아동을 위한 음성 책자 '드림 보이스', 롯데호텔의 폐기물 재활용 인테리어 및 친환경 'Re-Think 캠페인' 등 SDGs 목표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롯데는 지난 3 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국내 그룹사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하고, 그룹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SDGs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옴.

## 2.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2019-08-19 08:08



- 한국동서발전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중소벤처 육성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날 협약은 코이카에서 추진 중인 중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해외청정개발체제(CDM)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국내 중소기업 육성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체결됨.
-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유망 중소기업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재원을 지원하고, 코이카는 저개발국가에 적용 가능한 정수(淨水), 보건, 에너지, 농촌개발, 교통, 교육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기술 선정을 지원함.
- 한편, 동서발전은 2024년까지 아프리카 가나지역 50만 가구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사업비 총 125억원)해 약 7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 만달레이시와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개선사업으로 연간 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헤럴드경제](#)

## CSR 뉴스

### 1. "주주 이익만 목표 아니다" 美기업 '사회적 책임' 선언

"주주 이익만 목표 아니다" 美기업 '사회적 책임' 선언

대표기업 CEO 181명 성명서



- '주식회사 미국(Corporate America)'을 대표하는 유명 최고경영자(CEO) 181 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불고 있는 사회주의 바람을 차단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CEO 188 명이 속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이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보상 및 교육 등 직원 투자를 강화하며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대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주주를 위한 장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올해 성명서에는 1997년부터 기재됐던 "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 원칙이 폐지됨.
- 영국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됨.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초 영국 정부는 2022년부터 상장기업 및 펀드의 연차 보고서에 기후변화 영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 1 월에는 연기금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중시하는 기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스투어드십 코드도 강화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성명서가 '시장경제학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 가치 극대화 이론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철학적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함.

## 2. '책임' 없으면 투자 못 받는 시대... 금융권 '지속가능채권' 발행 잔걸음

### '책임' 없으면 투자 못 받는 시대... 금융권 '지속가능채권' 발행 잔걸음

입력 2019-08-27 11:55 수정 2019-08-27 13:01

금융권 지속가능채권 '러시' 이어져  
이미지 개선·자금 조달 '일석이조' 효과  
해외 지속가능채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  
정부 주도 지속가능채권 표준화 작업 서둘러야



- ESG 강화 흐름에 힘입어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등 금융지주사 및 은행의 발행도 잇따름.
- 블룸버그는 전 세계 지속가능채권 거래액이 올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64억 달러(약 19조 8600억)에 이르렀다고 보도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도 EU 처럼 회계 규정상 ESG 요소를 포함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채권 검증을 위한 전문 평가기관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8 월 16 일부터 9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델타이엔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2. COP/COE 제출회원

8 월 16 일부터 9 월 1 일까지 12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현대제철
- 포스코건설
- kt skylife
- LS 산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 BGF
- BGF 리테일
- 두산중공업
- 한전산업개발
- 신한은행
- kth
- 현대엔지니어링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9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li> <li>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li> </ol>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li> <li>•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li> </ul>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a href="#">learn more</a>)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1/4, 2/4, 3/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KDB 산업은행,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 오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열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LG 전자, 두산, CJ 제일제당,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고려제강,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양주시설관리공단, 델타이엔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